

남북한 방송교류활성화를 위한 방송기술협력 방안

박은현

한국전파진흥원 방송통신콘텐츠진흥본부

eun@korpa.or.kr

Broadcasting Technology Collaboration Plan : Development of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un-hyun Park

Korea Radio Promotion Agency

요약

남북의 상호이해, 신뢰회복, 이질감 완화를 위해 대내외적 정치적인 변수에 상관없이 남북방송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사회문화적, 단발적인 남북방송교류를 비정치적인 분야인 방송기술협력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젝트형 남북방송교류로 전환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는 평화공존과 협력이라는 방향성 아래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송기술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 서론

남한과 북한은 오랜 분단기간과 서로 다른 정치이념으로 각기 다른 문화를 형성해 왔다. 문화는 다양한 상징과 각종 요소로 구성된 복잡한 체계로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1]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할 경우 서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고정관념과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남북한의 경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상호교류자체가 자유롭지 못하고 북한의 정치적 체제 유지를 위한 폐쇄성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문화(異文化)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문화(異文化) 교류는 각기 다른 문화의 사람과 조직이 교류하는 '인적교류'와 '조직교류', 대중전파를 통한 '정보교류'로 구성[2]되는데 이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방송교류'라고 할 수 있다. 방송은 다양한 전문분야의 총화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유통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람과 조직이 자연스럽게 교류되고, 그 결과물은 전파를 통해 물리적인 제약을 뛰어넘어 전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 방송교류는 남북의 상호이해, 신뢰회복, 이질감 완화 등 남북통일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이 아닐 수 없다.

II. 남북방송교류 현황과 한계점

남북한 방송교류의 제안은 1957년 언론인교류, 출판사진물 및 기록영화필름 교환 등을 제외한 북한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남북방송교류는 90년대 중반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교류의 대부분은 영상물 수입, 북한취재 등 극히 제한적인 부분이었으며 일반인이 북한 영상물

을 접할 기회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남북한 방송교류의 질적인 변화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로 다수의 북한 영상물이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소개되기 시작했고 제작 및 보도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졌다. 같은 해 '북녘 땅 고향은 지금'은 KBS가 기획, 조선중앙TV가 제작하였으며, SBS는 창사 10주년을 맞아 국내 방송사상 처음으로 평양에서 특별생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2002년 MBC가 북한과 공동제작 한 '평양특별공연'은 조선중앙TV를 통해 북한전역에 중계되었다.

<표 1> 남북 방송제작 주요현황

년도	방송사	프로그램	비고
1999	MBC	특집 위성중계방송 '민족통일음악회'	당일녹화 후 밤 10:50~00:30까지 위성중계
2000	KBS	북녘 땅 고향은 지금	KBS 기획, 조선중앙TV 제작
2002	MBC	MBC 평양특별공연	남북공동제작 북한전역에 중계
2004	EBS	뽕뽕뽕 뽕뽕뽕	북한 삼천리총회사 22개 에피소드 제작참여
2005	MBC	한반도의 지붕 개마고원을 가다	남북최초 공동제작 자연다큐멘터리
2007	KBS	사육신 ¹⁾	남북공동제작 및 공동대본제작 방송기술교류 (디지털 촬영, 동시녹음)

※ 참고문헌 [2],[6] 내용요약

1) 사육신은 남한의 재정지원만을 바란 교류가 아니라 진정 남한 드라마의 노하우 및 제작기술을 배우겠다는 교류의지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으며 남한의 전 분야의 방송기술진들이 북측과 일대일로 만나 노하우를 전수했다.[6]

이후 각 방송사는 정치적 이념이 배제된 자연 및 역사 소재 등을 중심으로 북한 방송프로그램 구입·상영, 공동제작을 이어갔으며 2007년 8월에는 남북합작 방송드라마 '사육신'이 북한에 동시 상영되기도 했다. 사육신은 장기간 방송교류로 추진된 최후사례로 북한드라마로서는 처음으로 SD급 디지털 촬영, 동시녹음이 성사되었다.[2]

남북방송교류는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정부부처, 북한관련 연구소 등 일부 특수집단에게만 허용되었던 북한관련 영상을 일반 시민들도 부분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게 하여 방송이 남북간 간접적인 소통의 창이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언론이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정부의 정치적·이념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방송교류는 북측에게 체제 개방과 같은 것으로[6] 인식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송교류보다는 단발적이고 행사위주의 교류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모두는 방송교류를 추진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초는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하지만 지나친 동일지향적 대의명분만 갖고는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교류추진의 동력을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 남북의 방송제작협력이나 공동제작모델이 우리의 의도를 제대로 살리고 국내에서의 높은 반향도 이끌어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2]

특히 1990년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과 효과적인 방송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위적이고 이념성이 짙은 단순 사회문화적인 교류보다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기술산업적인 측면의 교류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III. 남북 방송기술협력 방안

남한의 방송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 현상이 진전되면서 방송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등 방송통신 산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3] 방송의 플랫폼도 IT기술의 적용으로 기존 브라운관에서 모바일, IPTV 등으로 진화되고,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실감미디어는 HDTV를 넘어 UDTV, 3D방송 등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남한의 방송기술의 첨단화는 남북한 방송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북한은 김정일 체제에 들어서서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삼고[4] 현재의 경제난을 단시간에 해결할 수 대안을 첨단 산업에서 찾고 있다.

최근 남북한 첨단기술 교류의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의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에서 IT기술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기술협력 사업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첨단 기술교류의 활성화는 방송통신융합과 방송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방송통신환경에서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방송교류의 폭이 더욱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방송기술 분야는 비정치적 분야로서 방송교류 전반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매개해 주는 역할

을 하며[7] 기술교류는 주로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북한 최고의 인재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이문화(異文化) 교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 방송교류에서도 디지털 방송편집·송출장비 지원, 디지털 방송중계차량 지원 및 기술이전 등 방송기술교류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방송이 첨단화 되고 기술이 방송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이때에 남북방송교류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사회문화적 남북방송교류에서 경제협력 및 상생발전을 토대로 한 기술산업적 남북방송교류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방송교류의 내용도 기자재나 재정지원, 영상물 구입, 공동제작 등 산발적인 교류가 아닌 거시적인 방송기술협력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형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방송매체의 디지털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임은 남북한 공히 인식하고 있다.[2] 하지만 북한의 경우 자본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자생적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디지털 방송 첨단화를 목표로 남북한이 북한 지역에 디지털 방송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첨단 방송기술이전과 인력양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다. 또한 단순 남북한공동제작에서 남한의 첨단기술과 북한의 자연 및 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방송콘텐츠를 제작하여 문화교류 뿐 아니라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등 산업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2> 남북방송교류 방향

구분	기존 남북방송교류	방송기술협력형 교류
성격	사회문화적	기술산업적
기간	일회성	장기성
방식	단발적	지속적
내용	기자재나 재정지원 영상물 구입 외주제작 및 공동제작	인프라 구축 및 공동활용 기술이전 및 인력양성 첨단기술형 콘텐츠제작

과거 방송이 독일통일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남북은 대내외적 정치적 변수에 상관없이 평화공존과 협력이라는 방향성 아래 남북방송교류를 지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정치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기획, 제작, 유통 각 가치사슬에서 남북이 Win-Win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교류방안을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관세걸, 이문화교류학, 건국대학교출판부, 2004
 [2] 김영덕, 남북 방송제작 협력시스템 구축 방안, 남북방송 교류협력과 증진을 위한 연구, 2008
 [3] 김정연, 방송통신콘텐츠산업육성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8
 [4] 김철환 외 4인, 북한 IT부문 및 남북 IT교류협력 현황보고서,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2007
 [5] 나은영, 인간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한나래, 2002
 [6] 이정준, 남북방송교류의 새로운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남북방송 교류협력과 증진을 위한 연구, 2008
 [7] 진용옥외 5명, 남북 방송통신 산업협력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개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08

2) 북한의 지상파TV는 민간의 방송국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방송에 해당한다.[2]

3) 북한은 수재만을 모아 과학기술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4]